

사순 제 1 주일

기도서	249 편
제 1 독서 : 신명	26, 4-10
제 2 독서 : 로마	10, 8-13
복음 : 루카	4, 1-13

숲 정 이

발행처 전주교전주교구
편집장 홍보국
인쇄관 리국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6
전주 교구청
☎ 0041 · 0042 · 0043

□ 강론



두 발자국

한 기 호 신부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어떤 사람이 하루는 자기가 걸어 온 발자취를 돌아보았다. 걸어왔던 길이, 험난하고 힘들었던 여정도 있었지만 평탄했었던 적도 있었다. 이 사람이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걸어온 험난하고 가파른 고개길에는 오직 자기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아 있었고 평지와 낮은 구릉의 평탄한 길에는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시어 마치 나란히 걸기라도 한 것처럼 예수님과 자신의 두 사람 발자국이 있었다.

이 사람은 꿈에서 깨어나 기도하는 중 예수님께 항의 하듯 물었다.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낮은 구릉과 평지에는 당신께서 동행하여 주시어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고 거칠고 험난한 길에는 저 혼자 걸게 하여 저의 발자국 한 사람 것만 남아 있게 해주었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예수께서는 조용히 대답해 주셨다. “자네는 힘들고 험난한 길에서는 나를 찾았고 그때마다 나는 자네를 업어서 날랐다네. 그러니 한 사람의 발자국 밖에... 그리고 험난한 길이 끝나면 자네는 날 멀리했네. 그러기에 그때마다 나는 자네 곁에서 함께 걸을 수 밖에 없었다네. 그러니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을 수밖에.”

이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체험을 그대로 반영해 준다. 어렵고 힘들면 주님을 찾고, 안정되고 평안할 때엔 주님을 멀리하여 유혹에 빠졌던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유혹을 물리치셨는가를 말해 준다. 예수님은 발아래 펼쳐지는 그 광경에 마음을 두지 않고 내적 투쟁에만 온 마음을 집중시키셨다.

우리는 내적투쟁엔 별 관심이 없고 주일날 잠깐 하느님 생각을 할 뿐 나머지 6일은 세상 유혹하는 삶에 빠져 지내는 때가 허다하다. 소위 ‘발바닥신자’로서 생활하기 일쑤다. 그러면서도 현세의 복만을 찾는 기복신앙에 젖어들기도 한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 데에도 문제는 있다. 주일, 평일미사 열심히 참례하고, 기도생활, 본당활동, 교회유지 협력 등 이쯤되면 죽은 다음 천사들의 부축을 받아 천국에 갈 것으로 자부심을 갖기 때문이다. 이 생각이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하느님을 상대로 내기를 거는 것과 같다. 이는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최소한으로 때운 것에 불과하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느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 나의 모든 하

<3편 하단에 계속>



천주교 신자라는데

시내버스 안에서의 대화나 상황들은 매우 풍요롭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화나 상황에 정신을 모으다가 보면 상당한 묵상거리를 만날 수 있다. 역시 하느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일깨우신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인들은 언제 어디에서나 마음의 문만 열면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야, 배운 사람이 우리보다 못한 것 같더라.” “그래, 그 사람 교육자라는데 그 아들들 태도를 보니 짝수가 노래.”—이상은 시내버스에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의 한 토막이다. 더 이상의 설명이 없으니 무엇을 뜻하는지도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화사하게 차려입은 두 여인의 모습으로 어릴 질작을 하는 수 밖에 없다. 그들은 직업여성으로 보였다. 그러다보니 쓸데없는 공상이 나래를 띄고, 그런대로 혼자서 그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수밖에 없었다. 글썽다, 무슨 이야기일까.

중요한 내용은 어쨌던 “배운 사람이 우리보다 못한 것 같더라”이다. 사람인지만 누구나 실수가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남보다 조금 더 배웠다는 죄(이유)로 혹시 손가락질 받을 일은 안했는가? 말을 바껴서 천주교 신자라는데 죄(이유) 때문에 더욱 더 호되게 비판받을 일은 없었던가? “신앙인들만 바르게 살아도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아름다울텐데”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아니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이 섬적해지는데, 나는 어떠한지?

또 사순절이 시작되었다. 긴 역사 안에서 끝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 천주교회 2백주년을 앞둔 해이다. 무언가 분명히 매듭을 지어야 할 때이다. 무언가를 해야 할 때이다. 그래서 금년 사순절은 더욱 뜻있게 보내야 한다.

숲 정 이 산책



신자가 해야 할 일!

200주년 특집 ③



200주년 정신운동의 의미

200주년을 기념하는 것은 단순히 200년의 햇수를 기념 하자는 말이 아니다. 20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의 역사를 되돌아 보고 자랑스런 우리 초대 교회의 정신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서 우리 신앙의 지표로 삼아 오늘날에 그 정신을 구현하고 나아가 우리 한국 교회의 새신을 이룩 해 보자는 것이다. 거듭 말해서 200주년을 우리 개개인 신앙생활에는 물론 우리 교회 전체에 있어서도 새신의 계기가 되게 하자는 뜻이다.

따라서 200주년을 기념하는 데 있어서는 200주년을 맞는 우리 모두의 정신자세가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어야 하는 점이 우선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결에서 200주년 정신운동은 200주년의 근본적인 의미를 우리 모두가 바르게 인식하고 그 정신을 행동으로써 실천에 옮기자는 운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은 우리 교회에게 새신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200주년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는 정신운동이 필요하다. 200주년 정신운동은 신자들에게 200주년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신앙심을 좀 더 각성시켜 교회의 새신을 추구하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

정신운동은 행사와는 달라서 일시적으로 끝낼 일이 아니며, 앞으로 200주년 기념사업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까지도 교회 발전에 있어서 참다운 활력을 불어 넣어 주어야 할 중요한 운동인 것이다.

* * *

전주교구 정신운동 분과 사업계획

1. 순교 정신 양양 운동

- ① 순교자 유해 본당 순회 기도회를 갖는다.
-본당에서 지구 행사로, 지구에서 교구 행사가 되도록 한다.
-구체적 방법은 소위원회에서 확정하도록 한다.
- ② 강연회를 본당별로 갖도록 한다.
- ③ 시청각 자료(영화, 슬라이드)를 최대한 이용하도록 한다.
- ③ 연극, 기념 음악회 등을 통한 교육을 모색한다.

2. 기도 바치기 운동

- 200주년 기도문을 신심단체에서, 가정에서 매일 바치도록 한다.
- 묵주신공 등 각종 기도문을 동일한 지향으로 바치도록 한다.

3. 순정이 주보에 200주년 특집란을 만든다.

- 월 1회, 8면 주보 발행, 4면을 200주년을 위해 편집
- 이를 위한 경비는 200주년 예산에서 충당한다.

□ 수류본당 신자들은 믿고 있다.

신자들의 재교육을 위하여 각종 교육과 피정을 하던중 그 열이 너무 지나쳤음(?)인지, 불의의 재난을 당했던 (1월 31일 저녁) 수류본당은 그 복구 작업에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다.

어려운 농촌 살림인지라 그들의 신앙심만 가지고는 힘겨움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믿고 있다. 슬픔과 근심에서 위로를 주시는 하느님을. 이번 사건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는 더 좋은 결실을 주시리라는 것을.

※ 수류본당을 도우실 분은 전주교구청이나 직접 수류본당으로 하시면 됩니다.

□ 순창본당 묵주기도 100만단 바치기

작년 대림 3주일부터 순창본당은 선교 200주년을 맞이 하면서 복음선포, 공산주의자들의 회심, 가정성화를 지향으로 묵주기도 100만단을 목표로 전신자가 합심하여 기도를 바치고 있다. 묵주기도는 성모 마리아를 통해 언제나 하느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하게 하여 기도의 생활화, 습관화를 가능하게 한다. 특히 사순절 동안 전가족이 함께 모여 묵주기도를 바친은 의있는 일이라 하겠다.

단식과 금욕

해마다 사순절이면 단식하고 금욕하는 의무를 행하게 된다.

단식-1. 낮 한끼만 충분히 식사하고 아침은 금식하고 저녁은 요기정도로 한다.

2. 재의 수요일과 예수 수난 금요일, 일년에 2일간만 한다.

3. 단21세부터 단60세까지 한다.

금욕-1. 육식을 금하는 것이며 우유, 계란, 기름 등은 괜찮다.

2. 재의 수요일과 사순절동안 매 금요일에 지킨다.

3. 단14세부터 죽을 때까지 지킨다.

단식과 금욕은 초대교회 때부터 매우 엄격히 행해져 온 관습으로, 후대에 내려오면서 점차 완화되어 오늘날과 같은 간략한 형태가 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법적인 조항으로서의 의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에 있다. 현대는 회생과 봉사의 정신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과 싸우며 40일 동안 엄재하신 것을 본받아 자신을 희생하여 형제에게 봉사하며, 또한 지난날의 잘못에 대한 보속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을 실천으로 옮기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단식과 금욕의 뜻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쓰여져야 한다.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이나 신학생 양성 후원금으로 쓰여질 때 우리의 희생은 더욱 값진 것이 될 것이다.

푸른 사장		정 약 국	
이 준 영(모이세)		약사: 정 석현(마르코)	
전화 2-3840		전화 2-9615	
구 성모병원(시내버스 승강장) 앞		<input type="checkbox"/> 성모병원	
발 달 로			
<input type="checkbox"/> 전동성당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약국 푸른사장	

L. P. G 판매, 시설

한국 가스 상사

신속배달, 무료점검

☎ ③ 1457, ④ 5928

주 이 안젤라

해외여행 업무개시

국제여행사 개설

전 일 관 광

전화 ⑥ 6666~8

대한항공 국내의 대리점
결혼대절, 제주도,
신혼여행 안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1983년도 사순절 메시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민은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그들의 모든 것을 공동소유로 내어놓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나누어 주었다”(사도 2,44-45).

다시 한 번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루가성사의 이 말씀이 본인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메아리칩니다. 사순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모든 인간의 형제 자매라는 자신들의 진정한 모습을 되새기도록 교회가 마련한 귀중한 시기입니다. 또한 모든 신자들이 실천적이고 관대한 방법으로 가진 바를 나누는 열정을 새롭게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바탕으로 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길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웃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웃’이라는 말은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마을과 동네에서 우라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특별히 질병과 고독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고국에서 쫓겨난 사람들, 실업자들, 먹고 입을 것이 없는 사람들, 또한 자유를 잃은 사람들 그 모두가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이웃은 고통받는 사람들, 비참한 불의의 재난을 당하여 거의 또는 완전히 파멸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재난은 인간을 육체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하며 또 많은 경우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비탄 속으로 인간을 몰아 넣습니다.

사순절은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내적 쇠신을 호소하시는 기간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와 성사 참여를 통해서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모든 종류의 시간, 금전 및 자원을 희생함으로써, 진정한 사랑을 들어내어 온 세계의 가난하고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채워주도록 호소하고 계십니다. 나눔은 천의의 모든 사람들, 적어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들로서는 회피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나눔에는 수많은 가능한 형태가 있습니다. 즉, 복음적 가치에 맞갖도록 봉사하는 자발적인 활동으로부터, 우리에게 남는 것을 관대하고도 계속적으로 주는 일, 또는 우리가 필요한 것까지도 내어주는 일, 모든 희망을 포기한 사람들이나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특별성년이 시작되는 1983년의 사순절은 특별히 은총의 시기입니다. 성년은 신자들의 삶을 크게 고무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이들의 형제 자매가 되도록 하는 계기입니다.

본인은 장엄한 교황 즉위식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모든 문을 그리스도를 향하여 활짝 열어 놓으십시오.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난한 형제 자매들에게 가능한 모든 것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을 널리 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새롭고도 지질 줄 모르는 분배자가 되십시오”.

—재의 수요일에—

(1면에서 계속) 나 하나의 삶이 하나님의 대면 속에서 이뤄지는 행동, 삶이어야 하기에 신앙생활은 우리의 전존재 행위이기도 하다. 생활과 분리된 신앙생활이야말로 유희에 빠지는 생활이다. 이제 바야흐로 사순절이 도래했다. 40일 동안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온, 재물, 교만, 허영, 부귀영화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새롭게 모시는 새신된 삶을 준비하는 때이다. 이 사순절은 성탄절처럼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기는 아니다. 가슴에 돌을 얹어 놓은듯 차고 소화가 안되는 듯한 계절이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면서 사랑의 생활로 회개하는 때이며 구원의 시기요, 은총을 받을 만한 때이다. 사순 첫주일을 맞이해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라 (중앙수석 보좌 신부)

요십이 (498) 김형오



☐ 특수자연시 컴퓨터를
국내 최초로 시설
발고
눈을 편하고 보호하는
시원하게

보안당 **센타**
구역전 오거리 전화 ③3032
윤(베드로) 종선

최윤경 미용실
(유리안나) 미용학원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
학생 수시 모집
해외 연수생 모집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③ 2496 ② 8653

남자 수도자 성소 상담

—수도생활에 관심있는 형제들의 상담을 기다립니다.
—마리아회 수도원은 교육사업을 통하여 사도직을 수행합니다.

121.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403-2 마리아회 (마리아니스트) 수도원

K. S. 표시 허가공장

신흥 콘크리트

☎ ⑥6016 ⑥6415

대표 이교성(요셉)

시멘트, 벽돌, 블록, 보도 블록, 철근 콘크리트관
근가, 철근 콘크리트관

☐ 관광 안내

주식회사 한길관광여행사

군산시 중앙로 1가 시청사거리

전화 ②0339 ②1147

우쿠 161, 547

대표이사 박노석(요한)

상임감사 문재원(첼라시오)
제주·설악 대한항공 대리점

- 혼수(회갑) 옷감
- 특수 파티복
- 고급 침구류
- 각종 솜 일체
- 커텐지

서울주단

☎ ③0453 ⑥50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로니카)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평협 정기총회: 20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장소-가톨릭 센터
 2. 휘글라레 월 전체 여자 모임: 20일<일> 오후 2시30분, 장소-중앙성당
 3. 교리교사 동계 연수회: 21일~23일, 장소-총광사
 4. 공동체 목사회: 22일~25일(선착순 40명), 접수-교육국, M.B.W. 추진회
 5. 남성 제17차 푸르실로: 2월 26일~3월 1일
 6. 200주년 교구 사목회의 준비 연수회: 2월 28일~3월 1일, 장소-가톨릭 센터
- * 방송 안내: 2월 22일<화> MBC-TV 오후 6시40분~7시20분 「역사의 고향」-한국 천주교 발상지 「천전일」 방영

(중앙)

주임 신부 문정현
수석 보좌 한기철
보좌 신부 안철민
사도 회장 김인철

전화 ②1711~3

- ※ 신협 정기총회: 20일 1시부터
1. 신학생 후원기금 모금: 각 세대당 하나(1개)씩 저금통 배부함
 2. 사순절: 인쇄해서 나눠드린 "신앙실천계획표" 활용
 3. 안드레아반 낮반: 매주 목·금요일 10시 2층 교리실
 4. 성가대 단원 모집: 부활절가 연습을 위해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5. 어머니 성가대: 매주 목 오전 10시30분, 청년 성가대: 매주 수·목 오후 7시30분, 접수-사무실
 6. M.B.W: 22일 오후 4시~25일 오후 4시
 7. 성전 신축권금 신입해 주신분: 김금주·김순기(각 10만원), 오경옥(5만원) 누계: 119,577,600원
- 지난주 봉헌금: 842,231원 교무금: 779,200원

(노송동)

주임 신부 김용태
보좌 신부 나춘성
사도 회장 이홍재

신부 ②0969
수·사 ②7032

1. 신학생 후원기금: 저금통에 우리의 정성을 모읍시다
 2. 사순절 특별강론: 23일 밤 8시30분,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날 저녁미사는 밤 8시에 있습니다
 3. 주일학교 졸업식: 27일 오후 2시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4. 교무금 납부의날: 오늘은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교무금은 매월 분납하여 본당 운영에 협조합니다
 5. 가정방문 일정: 21일~26일까지 방문대상구역-남노·중노1·중노2·인후동·우아동
 6. 차주 전례
새벽미사: 해설-은경순, 독서-①서용문 ②문정순
공식미사: 해설-박은경, 독서-①박태복 ②장옥남
저녁미사: 해설-유혜라, 독서-①박환주 ②이미경
기도담당-조해형·김규태: 제물봉헌-문명식씨부부
- 지난주 봉헌금: 본당-367,420원, 아파트-28,420원
지난주 교무금: 본당-218,000원

(덕진)

주임 신부 김봉희
보좌 신부 정양현
사도 회장 양상열

전화 ②2182번

1. 본당 대학생 모임: 학생회관, 오늘 공식미사 후 대학생과 교수님들 모두 참석 바람, 신입생 포함
 2. 반석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회의실
 3. 정신부님 가정방문: 사순절 동안 매일 실시
 4. 덕진신협협동조합 정기총회: 21일 오후 2시, 성당 교구님들의 보다 큰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5. 봉헌금 빠짐없이 신입 바랍니다
신입 누계: 50,001,000원
 6. 주일학교 개학: 27일, 2시 교리, 3시 미사
- 지난주 봉헌금: 370,225원 교무금: 335,000원

(복자)

주임 신부 권영균
보좌 신부 조성호
사도 회장

전화 ②5238번

1. 성우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수류성당 사제관 위환 헌금: 오늘 성의껏 협조 바람
3. 교리교사 동계 연수회: 21일~23일, 총광사에서
4. 주일학교 졸업식: 오늘 오후 아동미사 후
5. 십자가의 길 기도: 사순절내 금요일 저녁미사 후
6. 5개 신설 PR 명단: ① 사랑하옵 어머니(월요일 10시 미사 후) ② 다위의 탑(화요일 오전 10시) ③ 순결하십 어머니(목요일 오전 10시) ④ 황금 궁전(금요일 오전 10시) ⑤ 모든 성인의 어머니(토요일 저녁 미사 후)
7. 사순절 성경읽기: 불 판공성사 준비(요한복음 완독)
8. 반회장 회의: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9. 금주전례: 해설-김인식, 독서-①이갑진 ②송영자
차주전례: 해설-최정순, 독서-①이상인 ②강기연
- 지난주 봉헌금: 537,580원 구정합동미사: 438,000원

(서학동)

주임 신부 김병환
보좌 신부 한형수

전화 ②2276번

1. 할머니 모임: 오늘 공식미사 후
 2. 남성 푸르실로: 제17차 2월 26일~3월 1일 김배근씨 참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3. 중·고생 연수회: 24일~26일, 많은 참여 바랍니다
 4. 십자가의 길: 사순절동안 매주 금요일 미사 후
 5. 예비자 교리시간: 성인-매주일 공식미사 후 청년-매주(목) 오후 8시, 학생-매주(토) 오후 7시
 6. 사제양성 돼지저금통: 사순절동안 많은 성원 바람
 7. 차주전례: 독서-①김낙균 ②신영창
- 지난주 봉헌금: 286,760원 교무금: 176,000원

(휴정이)

주임 신부 김종길
보좌 신부 김수걸

전화 ②7366
수·유 ②9567

1. 십자가의 길: 사순절 매 금요일 오후 3시
 2. 신앙강연: 수요일 오후 8시(2월 23일, 2월 27일)
 3. 예비자교리: 수요일 오전 10시, 오후 7시30분, 일요일 공식미사 후
 4. 신협 정기총회: 오늘 공식미사 후(강당에서)
 5. 오수녀님 떠남: 22일
 6. 교무금 봉투는: 마련된 교무금함에 넣읍시다
 7. 신학생 후원금: ①강연회 끝에 ② 사순절동안 모아 부활축일 봉헌
 8. 군중후원회 가입: 사무실에
 9. 금주전례: 해설-김경주, 독서-강원모·김영재
기도-정주복·송용호
차주전례: 해설-김경주, 독서-박해근·이귀례
기도-김영채·김정민
- 지난주 봉헌금: 280,305원 교무금: 347,800원

(전동)

주임 신부 김병엽
보좌 신부 박찬길
사도 회장 이종두

신부 ②6208
사무 ②3222
수녀 ②8347

1. 성화회·장우회: 공식미사 후
 2. 성마리아 푸리아·교미시울: 오후 2시
 3. 신학생 후원회에 가입하세요: 회원 1인당 1천원
 4. 83년도 교무금 신입 바랍니다: 사무실
 5. 글라라 혈제회: 다음주, 6. 단식과 금육: 성금요일
 7. 단식과 금육에 대한 특별헌금 있음
 8. 주일학교 졸업식: 20일 오후 4시
 9. 도미니코 사비오회(보미사단) 임원개편: 회장-조형남, 부회장-김정옥, 서기-최원철
 8.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박종구, 독서-①김동연 ②최병래
공식미사: 해설-양원홍, 독서-①신일균 ②이영희
저녁미사: 해설-김윤주, 독서-①김동주 ②이영철
- 지난주 봉헌금: 601,570원 교무금: 227,000원

(파티마)

주임 신부 김영일
보좌 신부 황희상

신부 ②0915
수녀 ②4804

1. 조수녀님 종신서원식: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성가수녀원, 참석하실분 28일까지 신청, 차비-3천원
 2. 28일 중·고생 1일피절: 부모님들 적극 협력을 바람
 3. 오늘 주일금은 수류성당 사제관 화재의 복구비로 봉헌하겠으니 성실성의 봉헌합니다
 4. 매 수요일 아침미사 없음: 사순절동안 저녁미사로 변경(7시30분) 미사후 공식 "십자가의 길"기도를 바칩니다
 5. 대학생들의 모임: 주일 오후 4시30분
- 지난주 봉헌금: 184,990원 교무금: 162,000원
구정합동 위령미사: 277,000원